opusdei.org

단장님 교서 (2024년 2월 10일) | 순명

새로운 사목 교서에서 오푸스 데이 단장님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와 성소적 소명에 비추어 순명에 관한 묵상을 합니다.

2024-7-16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딸과 아들들을 지켜 주시기를!

1. 몇 년 전,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에 관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편지를 묵상하고 일상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려는 열망에 감동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며 가까이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언뜻 자유와 반대되는 미덕으로 보이는 순종에 대해 여러분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진정한 순종은 자유의 결과이며, 더구나 인간의 관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더 큰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성 호세마리아의 저작을 깊이 연구한 한 위대한 지식인은 창립자의 중요한 공헌,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보다 자유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1]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싶기 때문에 순종합니다,즉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유가 없는 순종은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스쳐가는 것 이상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요한 15:13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심오한 표현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원한다,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한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한다..."[2].

2.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계획을 생각해 왔습니다.이 계획은 초자연적으로 높은 단계의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창조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모든 남녀가 복된 삼위일체의 행복을 나누고,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열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존재감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감지되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순종 행위였던 우리 첫 부모님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운명에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묵상하는데 결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사랑때문에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그분과의 우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구원의 이야기에는 자유와 순종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유감스러운 결과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속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3. 이 페이지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신비에 중심이 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삶 안에 존재하는 순종의 미덕을 함께 묵상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순종은 의무가 수반되는 제도와 규범 때문에 필요합니다, 순종은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 삶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자연법과 더불어 공존하는 시민 법규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들의 순종으로부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자발적인, 진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도 순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특정한 영적 상담을 따르는 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문화는 순종을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위대한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종

을 회피하려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피한 예외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의존성을 부정적인 견해로 생각하는 권위자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오늘날 모든 종류의 권력 남용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은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형태의 권위에 부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하고(창세 3:1-11 참조),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한"[3] 원죄의 유산인 불순종에 대한 일종의 타고난 성향이 존재합니다.

순종의 최고 가치 및 자유와의 실존적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순종의 수준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분 중심의 다른 측면, 즉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배웁시다. 예수님은 라틴어로 Erat subditus illis (루카 2:51)라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 놀라운 생애를 복음사가의 펜에 담고자 했습니다. 하느님은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피조물인 성모 마리아(그분보다 더 큰 분은 오직 하느님)와 성 요셉에게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4]. 하느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다른 착한 자녀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온 삶으로 표현하셨습니다(필리 2:8 참조).

하느님에 대한 순종

4.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께 항상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순종이 백성에게 가져다 줄 모든 축복을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주 너희 하느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신명 28:1)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가장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순종으로 이끄는 교육입니다. 즉 우리의 뜻을 무조건적인 예(yes)로 하느님의 뜻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 라는 성찰과 함께 완전한 성취를 이끌어내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예레 7:23)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이 하느님의 계획과 합쳐질 때 그 계획은 더욱 커지고, 하느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아들로서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먼저 순종하고 친척들과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4)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

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성 바오로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 2:7-8)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온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의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로마 5:19). 순종은 특정한 순간이나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끝까지"(요한 13,1) 유순하게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5.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와 종교 권위자들에게 성 베드로는 "우리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사도 5,29)라

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위한 구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하다면 순교까지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새로운 자유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게 되면 인간 자유의 토대가 되는 참된 순종을 배우도록 간구합시다."

5]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큰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는 탐구에 임할 것입니다.하느님께서 때때로 모호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기도는 순종의 태도로도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 성 호세 마리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당신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와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당신께 순종하는 데 자신을 열렬히 던질 수 있게 해주소서.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중재

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종 타인의 중재로 제시됩니다. 애당초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통해 나옵니다. "순종은 교회라는 보편적인 구원의 성사를 구체적인 표징으로 받아들이는,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선택"입니다.[7] 또한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더 크거나 적은 권한을 부여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는 다소 평범한 사건을 통해 우리

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숨겨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 안에서 온순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평범한 남녀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듣는 섬세한 중재의 본질을 아시고 겸손하고 성실하며 내적인 침묵의 태도를 기르라고 조언하셨습니다."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양심 깊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분의 뜻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충실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종종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결점을 알거나, 그들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잘 파악했는지, 즉 정보의 확실성을 의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

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우리는 자신의 지능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합시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진리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이기심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집착인지 모든 경우를 살펴봅시다."[8]

7.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수준의 권위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함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인적인 자질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책임자가 누구든 여러분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조건 때문에 그에게 순종합니까?아니면 성바오로의 obedite praepositis vestris '당신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에 따라 편리하게 해석합니까? -그들이 항상

내 취향에 맞는 덕을 가지고 있다면."[9]

그렇다고 지시나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지성과 성실, 초자연적인 믿음과 신뢰의 맥락에서 우리는 항상 문제의 본질과 영역에 따라 오류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때 권위자와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는 순종이 하느님 뜻의 징후인 한, 순종은 윗사람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미덕이라고 설명합니다[10].물론 모든 정당한 명령이 반드시 최선의 명령은 아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 옳은 것보다 겸손과 통합에 더 초

자연적인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순종은 열매를 맺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자연적 비전의 중요성, 즉 받은 징후를 인간적인 평가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자신의 지시나 조언이 마치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결정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9일자 서간에서 여러분에게 쓴 것처럼, "영혼을 존중하는 지시는 우선 지시와 영적 동반을 혼동하지 않고 양심의 내면을 섬세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둘째, 이러한 존중은 단순히 적절한 권고와 조언 또는 제안과 명령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13항).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십니다. 하느님은 순종하기 위해, 피조물에게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1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모님에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신 후 "erat subditus illis, 그들에게 순종했다"(루카 2:49-51 참조)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종종 어떤 특정인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순종과 자유

8. 인류 역사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만큼 심오하고 자유로운 행위는 없었습니다(요한 10:17-18 참조). "주님은 사랑의 정상인 십자가에서 자유의 절정을 누리셨습니다. 그들이 갈바리아에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십자가 상에 끝까지 남아 아들로서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12]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십자가는 "슬픔도,불쾌함도, 고통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룩한 나무이며... 그분이 보내주신 것을 기쁘고 관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승리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13] 제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와 순종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랑때문에 순종하고 자유로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위대한 친구이며,이것이 바로 내가 이 그리스도교적 미덕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입니다."[14] 우리 아버지께서도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랑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확신하셨듯이,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일 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은 "가장 초자연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기 포기는 자유의 결과입니다. 자기 포기에 대한 자유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15]

9.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고싶은 대로 하여라"[16]: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씀에서, "자유는 사랑에 속한다"(libertas est caritatis)[17]라는 것처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오직 필요와 의무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자유의 완전한 법"(야고 1:25 참조)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로마 13:8-9 참조).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들은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이나 생각이 없는, 타성적 또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순종할 때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창성, 주도성, 자발성을 가지고 지성과 의지의 모든 에너지를 지시하는 곳에 투입하고 또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다른 것은 사회적인 혼란 상태일 것입니다. 일에 대한 순종은 모든 개인적 가치관의 발전을 촉진하며, 개성을 잃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두 살 때 또는 여든 두 살 때 같은 사람입니다."[18].이러한 발단은 순종하는 경우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창의성을 제안하고 기여할 수 있으며 항상 권위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바실리우스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악을 외면하고 노예상태에 있거나, 보상의 인센티브를 추구하여 용병을 닮는 것보다는 오히려 명령하시는 분의 사랑을 위해 순종하면 (...) 어린이들의 기질을 갖게 됩니다."[19].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지성을 배제하는 자발적인 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추론을 통해 선을 추구하는 지성과 그것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성과 자유, 무엇보다 내면의 자유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순종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자발성과 책임감이 없는 순종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순종일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돌이나 시체가 아니라 지적이고 자유로

운 존재이며, 모두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질서로 키워졌습니다."[20]

10.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의견을 가져보지 않고 하는순종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마도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함께 믿음이 종종 작용합니다. 어떤 지시가 나보다 판단력이 좋은 신중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같은 의견을 갖지 않고도 순종합니다. 또는 내가 그 의견을 받아들일 때, 일단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한 결정에서 성령의 은총을 보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의지를 볼 때, 순종은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서 성 토마스는 의지는 선택의 대상을 제시하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지만[21], 사람을 적절하게 지시하는 능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루카 6:45 참조): 어떤 질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고 싶지 않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의지는 지성을 지배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을 부정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주어진 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인간 본성상 이러한 고통을 겪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까"(마태 27:46)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22편의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고

통 속에서도 자유롭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시편 31:6 참조)라는 시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속죄이며(로마 5:19 참조),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순종이자 우리 구원의 원천입니다(필리 2:6-11 참조).

순종과 신뢰

11. 순종과 신뢰는 또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할 때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는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반면 신뢰가 약화되면 순종은 순전히 외적, 형식적고 먼 이야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순종을 장려하기 위해

서 애정과 자비의 분위기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태도는 자유와 순종을 강화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신뢰가 부모와 자녀 간의 우정을 쌓는 열쇠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유가 없다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속이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22] 친밀감은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섬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금방 거리가 생기고 투명성이 쉽게 사라집니다. 의지의 교감이 없는 단순히 외형적인 순종만을 확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마태 7,26 참조).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명에서 가족이나 집단의 권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

니다. 사실, 그들의 첫 번째 섬김의 행위는 모든 사람과 신뢰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찾는데 앞장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적인 조직이라도(하느님의 일은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23]),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처럼 자유롭다"[24] 라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일”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은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신뢰와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지적이고 자유로운 성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일이 초자연적인 가족이라는 것은,신뢰와 함께 믿음과

사랑은 권위와 순종의 진정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순종과 사도적 결실

12.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완벽해지심으로써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습니다."(히브 5:8-9).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순종의 열매인 구원은 또한 순종과 우리 삶의 사도적 결실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루카 5:4)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는 장면을 자주 묵상해 왔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 Duc in altum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오 순종의 힘! -겐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들은베드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도록 헛된 수고였습니다. -이제 순종하여, 그는 물속으로 그물을 던져 많은 양의 물고기, piscium multitudinem copiosam 를 잡았습니다. 믿으십시오,기적은 매일 반복됩니다.”[25]

13. 사도적 사명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열매인 광범위한 개인적 주도권을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수단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따라 하느님 일의 중심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된 수단은 항상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26]

하느님 사업의 방향 및 사도직에서 순종하는 방법은 가족안에서 또는 사람들 간에 형성하는 적절한 친교입니다. 사람들 간의 친교라는 것은 자유

로운 친교, "오푸스데이를 수행하는", 개인적인 솔선수범과 세대 간의 친교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행동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 뜻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확신은 가족에게 합당한 순종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협력을 청합니다.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종은 일치의 표현이며, 바로 사도적 열매의 조건입니다:ut omnes unum sint... ut mundus credat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이가 하나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우리는 영적 동행과 통솔자들 간의 분리를 엄격하게 존중하고 항상 그리스도인 성소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 소명에 큰 감사를 표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참된 미덕을 기르는 것은 경청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내적 풍요로움의 중재 없이 오직 실행만 하는 무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그래서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대부분의 불순종은 기본적으로 겸손이나 봉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요청된 지시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27] 반면 섬기는 자세로 들으려는 욕망의 결과로 그는 "오푸스 데이에서 우리는 머리와 의지로 순종하지 시체처럼 순종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시체와 함께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경건하게 묻습니다."[28]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다른 사람의 뜻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와 머리, 사고의 결합으로 그 사람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 요셉의 지적인 순종

14.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 요셉에 관한 서간에서 "요셉은 수태고지의 마리아와 겟세마니의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밝힐 줄 알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29] 성 호세 마리아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종종 성 요셉을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마음, 즉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에피소드에서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순종은 항상 엄격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성 요셉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적극적이고 그의 신속한 순종이 사건의 흐름에 따른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30].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창립자는 성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성을 눈앞의 현실에 적용했다는 사

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을 포기하지도 책임을 게을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섬김에 봉사하셨습니다 (...) 성 요셉의 신앙은 완전하고 신뢰하며 통합적이며 하느님의 뜻에 효과적인 헌신과 지적인 순종으로 표현하셨습니다."[31]

특히 이 세상의 변화와 도전적인 상황에서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성 호세마리아께서 개인적인 자유에 통합되는 지적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15. 최근 몇 년 동안, 성모님의 헌신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헌신에 관한 기록을 이미 3세기 초에 리옹의 성 이레네우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브는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불행의

매듭을 지었지만 마리아는 순종으로 그것을 풀었습니다."[32]축복받은 성모님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 산다면,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 풀 수 없는 매듭들이 얼마나 많이 풀리겠습니까!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봉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태도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모르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순종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

다면,성모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모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나 양심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33]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순종이 자유와 충돌한다면 성모님께 향합시다. 성모님은 진정한 순종으로 하느님 자녀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함께 기쁨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애정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로마, 2024년 2월 10일

[1] C. 파브로, "그리스도인 자유의 교사", L'Osservatore Romano, 2-VII-1977. www.opusdei.org/es-es/article/un-maestro-de-la-libertad-cristiana.

[2] 성 호세마리아, 성령께 드리는 기도, 1934년 4월.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7번.

[4] 성 호세마리아, 편지 38, 41번. 이후 저자가 언급되지 않은 인용문은 성 호세마리아에서 발췌한 것이다.

[5] 베네딕토 16세, 강론, 2010년 4월 15일.

[6] 거룩한 묵주기도, 네 번째 빛의 신비.

[7] 프란치스코, 담화, 17-II-2022.

[8] 지나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17항.

[9] 길, 621쪽.

[10] 참조: 성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II-II, 104 a. 1.

[11] 지나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17.

[12] 베네딕토 16세, 삼종기도, 1-VII-2007.

[13] 사랑의 담금질, 788 쪽.

[14] 지나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17 쪽.

[15] 하느님의 친구들, 30 쪽.

[16] 성 어거스틴, 에피스트에서.이오아니스 아드 파르토스, VII, 8 (PL 35, 2033).

[17] 성 어거스틴, 자연과 은혜, 65, 78 (PL 44, 286).

[18] 편지 11, 39.

[19] 성 바실리, Regulae fusius tractatae, prol. 3 (31 페이지, 895).

[20] 에스크리바 몬시뇰과의 대화, n. 2.

[21] 참조: 성 토마스 아퀴나스,성 토마스 아퀴나스, Quaest. disp. de Malo, q. VI: Intelligo enim quia volo; et similiter utor omnibus potentiis et habitibus quia volo.

[22] 에스크리바 몬시뇰과의 대화, n. 100.

[23] 같은 곳, 63 번.

[24] 편지 18, 38면.

[25] 길, 엔. 629.

[26] 편지, 6 월 17, 1973, 35면.

[27] 밭고랑, 379 쪽.

[28] 1964 년 11 월 9일 가족 회의 메모, Vázquez de Prada, 오푸스 데이의 설립자 (III), 407.

[29] 프란치스코, 사도 서한 Patris corde, 2020년 12월 8일, 3.

[30]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42쪽.

[31] 같은 곳.

[32] 성 이레네우스, 『대적』, III, 22, 4 (PG 7-I, 959-960).

[33] 지나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173쪽.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danjangnim-gyoseo-2024nyeon-2weol-10il-sunmyeong/ (2025-12-2)